

시원한 침실꾸미기! 여름 인테리어 TIP / 침실인테리어 / 가구배치 / 여름이불세트 / 여름이불추천

이브자리 제품

2016/07/05 10:00

http://blog.naver.com/evezary_official/220753877907



시원한 침실 꾸미기 여름 인테리어 TIP

 이브자리
GOOD BEDDING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에 열이 나는 듯 후끈거립니다. 더위 탓에 편히 쉬어야 할 집은 숨 막히는 찜통이 되곤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청량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는 여름 침실 인테리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원한 침실 꾸미기

여름 인테리어 TIP

01 포인트 컬러 사용하기

풍수 사상에 따르면 여름의 붉은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차가운 기운을 가진 ‘물’이라고 합니다. 여름이면 집 앞마당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물을 뿌리곤 하는데요, 물이 아스팔트의 열을 흡수하면서 열이 식는다는 과학적 원리도 있지만 부족한 물의 기운을 끌어 올린다는 풍수 사상도 있답니다. 동남아처럼 열대 기후에 속하는 더운 나라에 수상 가옥이 발달한 이유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을 연상시키는 파랑, 초록 등의 차가운 색 계열은 시각적으로 축축한 느낌이며 빨강, 주황 등의 따뜻한 색 계열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느낌입니다. 또한, 따뜻한 색 계열은 정열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인 것에 비해 차가운 색 계열은 호흡을 고르고 쉬어가는 이미지에요. 이러한 이유로 차가운 색 계열은 여름이면 많은 사랑을 받는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컬러 세 가지를 알아보아요.

*BLUE 파란색

1958년 미국 LA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제라드(Robert Gerard) 박사는 빨강, 파랑, 흰색에 대한 생체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빨간색을 보자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며 근육이 경직됐지만 파란색을 보자 호흡·혈압·눈을 깜빡이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사람이 파란색을 보게 되면 신진대사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실험이지만 지금까지 그 효능이 입증되어 색채 치료법으로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지요.

파란색은 행복함, 편안함,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어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침실에 가장 매력적인 색이에요. 날이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져 스트레스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은 이를 완화해 심리적으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파란색은 탁 트인 여름 바다의 청량함을 먼저 떠올리게 한답니다.

*GREEN 초록색

초록색은 에너지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무더위로 지치고 피곤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센터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초록색 계열의 불빛은 편두통 증상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초록색 불빛이 뇌와 눈에 가장 작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자극이 적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초록색을 사용한 인테리어는 자연의 맑고 신선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초록색은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 여름 인테리어 컬러로 제격이에요.

*WHITE 흰색

흰색은 무게감을 덜어주는 순수한 색입니다. 흰색의 팽창 효과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해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됩니다. 더불어 흰색은 함께 매치한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어떤 공간에 있던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력이 있어요.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흰색을 적절히 매치하면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 방의 분위기를 쾌적하게 합니다. 단, 채도가 높은 강렬한 톤보다 파스텔의 부드러운 톤이 보다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시원하게 보여요.

02 가구 재배치하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선조들은 어떻게 여름을 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집 안에 들어온 바람이 방 안에 오래 머물도록 마당을 비우고 여닫이문을 만들며 대청마루의 천장은 높게 설계했습니다. 간혹 방이 여러 개 겹쳐 있는 한옥이 있는데요, 이 역시 바람이 집 안 곳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이런 선조의 지혜를 빌리면 침실 안에 시원한 바람이 잘 머물게끔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방 안이 가구로 가득 차있으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하죠. 우리나라의 침실은 대개 좁은 편이어서 가구를 많이 들여놓으면 더욱 비좁아 보입니다. 특히 침대는 부피가 커 침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침대 놓을 곳을 먼저 정한 다음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침대는 문을 바라보거나 옆에서 문을 볼 수 있게 배치하고 벽과 10~15cm 정도 거리를 두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헤드는 창문이 있는 벽에 놓으면 좋아요.

좌식 생활을 하는 분들께서는 요·매트리스를 같은 방법으로 깔아두시면 됩니다. 침실에는 꼭 필요한 가구만 들여놓고, 그럼에도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한쪽으로 가구를 몰아 두어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도록 만드세요.

03 침실 소품 바꾸기



*벽지

파스텔 색조나 밝은 색으로 벽지를 바꿔보세요. 방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환해지면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색보다는 화이트/베이지처럼 투명하고 하얀 색이 좋습니다. 한쪽 벽면에만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포인트 컬러의 벽지로 한쪽 벽면을 꾸미면 훨씬 생기 있고 발랄한 느낌이 든답니다.

*커튼

창문도 시원한 옷을 입어야겠죠? 여름용 커튼은 바람에 팔랑이며 가볍게 훑날릴 수 있는 소재가 좋아요. 밝은 색으로 바꾸면 침실이 한결 가볍고 시원해 보입니다. 얇고 하늘거리는 레이스, 린넨 소재나 세로로 길게 뻗은 스트라이프 패턴은 체감 온도를 내리는 데 도움을 주어요.

여름용 커튼은 햇빛을 완전히 막는 어둡고 두꺼운 것보다 어느 정도 빛을 부드럽게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데요, 여름 햇살만이 가지고 있는 멋스러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튼 속만 남겨두거나 봉을 이용하는 밸런스 커튼을 사용하면 별도의 시공 없이 간편하게 인테리어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디퓨저



▲ 이브자리 디퓨저는 친자연주의 컨셉을 살린 향기로 힐링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강한 향이 아닌,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을 담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요.

상쾌한 여름 바다 혹은 청량하고 쾌활한 숲의 향이 느껴지는 디퓨저를 준비해 보세요. 침실에 디퓨저를 놓아두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분위기를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향기로 물들일 뿐 아니라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힐링 효과도 있어요. 특히 라벤더, 스위트 오렌지 향은 여름 밤 숙면을 돕는 데 매우 적절하답니다.

04 여름이불로 교체하기

침실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침대! 어떤 디자인의 침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침실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시원한 디자인의 여름이불을 찾는 분들께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이브자리 제품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얼음 조각처럼 시원하고 맑은 여름이불: 이브자리 메이블**



이브자리 메이블

얼음 또는 유리 조각을 연상시켜 찬란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브자리 메이블! 얼음이 가진 맑고 투명함을 이불에 투영했는데, 한 줄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으면서도 불규칙하게 배열된 얼음 조각 패턴이 보는 재미를 준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면 유리가 반짝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밝은 민트와 그레이 컬러를 매치해 세련된 감각을 살렸습니다.

*청량감을 주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여름이불: 이브자리 노먼



이브자리 노먼

더위로 인해 침실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화이트와 블루, 그린 컬러의 이불로 상쾌한 분위기를 내보세요. 이브자리 노먼은 청색 계열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중성적인 컬러감이 차분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특히 이불과 베개 커버의 패턴 방향이 반대여서 세트로 구비하면 생동감까지 느껴져요. 경쾌한 마린 룩을 연상시키며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여름 날 정원에 온 듯한 순수한 느낌의 여름이불: 이브자리 라임페퍼**



아기자기하면서 화사한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이브자리 라임페퍼를 추천합니다. 푸른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여름 숲을 연상시키는데요, 하얀 도화지 위에 자연을 그려낸 듯 나뭇잎 일러스트에서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순수한 화이트와 싱그러운 그린 컬러, 그리고 소녀의 수줍은 미소 같은 핑크 플라워 패턴이 마치 동화 속 요정이 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쾌적한 인테리어를 연출하고픈 싱글이나 사랑을 꽃피우는 신혼부부의 여름 침실에 잘 어울리는데요, 이불 뒷면은 작은 잎사귀들이 프린팅되어 있어 기분에 따라 침실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디어마이프렌즈 김혜자 이불!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에서 희자 이모가 덮고 잤던 하얗고 예쁜 이불이 바로 이브자리 라임페퍼입니다. 예쁘고 화사한 디자인이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인기 제품이에요.

***청명한 여름 하늘을 연상시키는 여름이불: 이브자리 아이스멜론**



이브자리 아이스멜론

청색 계열은 바탕이 화이트 컬러일 때 더욱 빛이 나는데요, 이브자리 아이스멜론은 물빛이 섞인 블루 컬러가 맑고 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채도가 낮아 편안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요. 커다란 원형 패턴은 탁 트인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트로피컬 패턴의 파란색 여름이불: 이브자리 비비앤



이브자리 비비앤



열대 지방의 자유로운 느낌이 떠오르는 트로피컬 패턴은 어떠신가요? 이브자리 비비앤은 리조트에 놀러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으로 화려한 패턴이 그려진 이불 앞면과 깔끔한 민무늬의 이불 뒷면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감각이 돋보입니다. 채도가 낮은 블루 컬러가 차분한 듯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섬세한 줄 누비의 패턴 스타일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여름은 평소보다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누운 자리가 눅눅하고 몸이 끈적거리 불쾌지수가 올라가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흘린 땀을 빠르게 흡수·발산하며 이불 안에 갇힌 따뜻한 공기를 시원한 공기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여름이불을 덮어야 합니다. 여름이불을 고르기 위한 보다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대표적인 여름이불 섬유 종류 3가지

▷ ▶ [시원한 여름밤 보내기, 준비는 지금부터! 이브자리 여름이불 추천 \(클릭\)](#)

30℃를 넘는 한낮 기온이 잇따르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름 침실 인테리어 방법으로 올여름 더위 잡고 시원한 침실을 만들어 보세요!

